

「인공지능(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 전문가들, “인공지능(AI) 전환기, 철저한 모니터링과 맞춤형 직업훈련 필수” 제언
- 고용노동부, 포럼 논의 등 바탕으로 내년 인공지능(AI) 대응 일자리정책 로드맵 발표

고용노동부는 12월 17일, 김영훈 장관을 비롯하여 인공지능(이하, ‘AI’) 및 노동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AI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대응 방향과 정책 과제를 심층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9월부터 산업현장, 학계, 연구기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술 발전 현황 및 노동시장 영향 ▲AI 전환에 따른 직무 전환·일자리 대체·고용 감소 대응 방안 ▲AI 활용 기업 및 행정 사례 ▲AI 전환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과정의 법적 쟁점 ▲AI 기반 디지털 공공 고용 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논의해 왔으며, 이번 최종보고회는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 정리하는 자리였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AI 기술 도입이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동시에 직무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①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 ②디지털·AI 역량 중심 직업훈련 강화, ③AI 고위험 계층에 대한 전환 지원 등의 시급성을 고용노동부에 제언했다. 또한, 중소기업·서비스업·저숙련 직종에서의 AI 전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형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되었다.

포럼 위원장인 조성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AI 전환으로 사람과 AI가 협동하는 방식으로 노동의 형태가 변화할 것”이라며, “AI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AI 리터러시 교육과 전문가 훈련 등 현장 중심의 직무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적극 수용하여, 향후 고용노동 정책의 핵심 방향을 AI와 공존하는 “노동이 있는 대전환”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술 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AI산업 인력 양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는 우리 일자리의 지형을 바꿀 거대한 파도지만, 튼튼한 배와 나침반이 있다면 더 멀리 나아갈 기회”라면서,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께서 주신 제언은 향후 정책 설계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도 AI 산업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심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포럼 결과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AI 대응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AI 전환 영향에 대한 분석 ▲AI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전략 ▲업종·직종별 맞춤형 전환 지원 ▲안전망 체계 구축 등 중장기적 정책 과제들이 포함될 예정으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산학연·노사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긴밀히 협력해 “노동이 있는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상임 (044-202-7210)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김철수 (044-202-7212) 박태군 (044-202-7211)

참고1

「AI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 개요

- ☐ 일 시: '25. 12. 17. (수) 10:00~11:30
- ☐ 장 소: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 B-102호
- ☐ 참석(19명)

○ 우리부(8명): 장관, 고용정책실장, 고용서비스정책관^代,
직업능력정책국장, 고용정책총괄과장 등

○ 포럼위원(11명): 조성준 서울대 빅데이터 AI 센터장(좌장) 등 11명
- ☐ 논의 주제

○ 발표 1: AI 시대 고용노동부 역할 제언

○ 발표 2: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안)
- ☐ 진행순서

※ 인사 말씀까지 공개

시간('95)	일정	비고
10:00	개회	사회 : 고용정책총괄과장
10:00~10:04('4)	인사말씀	장관
10:04~10:05('1)	(기자단 퇴장)	-
10:05~10:20('15)	발표 ① AI 시대 고용노동부 역할 제언(조성준 서울대학교 교수)	
10:20~10:35('15)	발표 ②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안) (이상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	
10:35~11:25('50)	자유 토론	주재 : 장관
11:25~11:30('5)	마무리 말씀	포럼 좌장 → 장관 順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지난 4개월간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을 이끌어주신
조성준 좌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발전이라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챗GPT로 촉발된 생성형 AI의 확산은
단순히 기술의 진보를 넘어,
우리의 일하는 방식과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지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생산성의 비약적인 향상을 기대하지만,
현장에 계신 노동자분들은 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않을까,
기계가 나를 대체하는 않을까 불안해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AI는 우리 일자리의 지형을 바꿀 거대한 파도지만,
튼튼한 배와 나침반이 있다면 더 멀리 나아갈 기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최종 보고회를 갖는 우리 포럼은
노동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학계와 현장의 최고 전문가이신 위원님들께서
치열하게 고민해 주신 결과와 제언들을
무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들으려 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철저한 모니터링과 분석’,
‘AI 시대에 부합하는 맞춤형 직업훈련’,
‘AI 고위험 계층에 대한 전환 지원’이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제언을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포럼 결과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AI 대응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과 ‘노동’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AI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돕고 확장시키는
‘노동이 있는 대전환’, ‘사람 중심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고용노동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열정을 다해 지혜를 모아주신
포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